

논술을 통한 학생 선발방향

● ● ● 박 제 남 | 인하대학교 입학처장

우리나라의 대학입학제도는 1945년 이후 60여 년간 많은 시행착오와 지속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현재 이 선발제도는 정부와 대학 간의 주도권 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9학년도 이후부터는 내신·수능과 대학별 고사가 병존하게 되는 가운데 그 반영비율이라든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의 질적인 관리에 대한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짐작되는 바이다. 이에 여기서는 현 대학별 고사의 평가방식인 논술의 문제점 및 개선안 등에 대해, 특히 자연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의 학생 선발제도는 대학별 단독시험, 대학입학국가연합고사, 대학입학예비고사, 대학입학학력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1945년 이후 지금까지 13차례의 변화가 있었다.

〈표 1〉 해방 이후 우리나라 대입제도의 변천사

연도	대입제도
1945 ~ 1953	대학별 단독시험기
1954	대학입학국가연합고사, 대학별고사 병행기
1955 ~ 1961	대학별 시험 또는 무시험과 내신제 병행기
1962 ~ 1963	대학입학 자격 국가고사기
1964 ~ 1968	대학별 단독 시험기
1969 ~ 1980	대학입학예비고사, 대학별 고사 병행기
1981	대학입학예비고사, 고교내신 병행기
1982 ~ 1985	대학입학학력고사, 고교내신 병행기
1986 ~ 1987	대학입학학력고사, 고교내신, 논술고사 병행기
1988 ~ 1993	대학입학학력고사, 고교내신, 면접 병행기
1994 ~ 1996	대학수학능력시험, 고교내신, 대학별 고사 병행기
1997 ~ 2001	대학별 제한적 자율결정기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대학별 고사 병행기
2002 ~	무시험 전형기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및 구술고사 병행기

대입 선발제도는 정부와 대학간 학생 선발의 주도권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2009학년도 이후에는 내신, 수능, 대학별 고사가 병존을 하면서 반영비율과 대학별 고사의 질적 내용에 대해 정부와 대학 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견되고 있고, 그 중 대학별 고사는 본고사와 관련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본 소고에서는 대학별 고사 중 논술을 중심으로 다뤄 보고자 한다.

우선, 본고사를 이해하기 위하여 3불(不)의 정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I. 3불의 정의

어떤 사항에 대해 토론을 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이 때 관련된 용어가 모두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이다. 한 가지 용어를 각자 다른 뜻으로 해석하여 이해하고 있다면 건설적인 토론이나 합의를 이끌어 내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다. 현재 주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3불(不)정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 역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먼저 본고사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이는 세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진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본고사는 예비고사와 짝을 이루는 말이며, 선발제도와 관련해서는 학생 선발방법을 대학이 100% 결정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평가내용에서는 문제의 출제가 고교교육과정 내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8학년도 입시를 앞두고 정부당국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본고사'란 위의 정의에 따르면, ① 학생부나 수능성적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② 대학이 주도하여, ③ 일부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따라서 대학이 학생부, 수능과 함께 고교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논술(인문, 자연)을 적절히 배합하여 학생을 선발하면 해결되는 문제이다. 2008학년도를 기준으로 논쟁점을 정리하면 인문계열에서 언어논술에 '영어지문의 사용' 여부 그리고 자연계열에서는 수리논술에 '특정 교과지식의 사용', '수식의 사용', '답이 유일한 논제의 사용' 여부이다. 논술은 사고력을 기반으로 논리력과 창의력을 펼치는 글쓰기이지 영어독해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므로 영어지문의 사용은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러나 자연계열은 약간 다르다. 심화 선택과목을 포함한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소재로 논제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하고 수식은 자연과학의 언어이므로 일정 부분 수용해야 한다. 특히 정답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정이 여러 개 존재하는 논제라면 자연과학의 특성상 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고사 금지제도가 보완되면 학생 선발에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고, 따라서 고교등급제는 의미를 잃게 된다. 왜냐하면 고교등급제는 학생 선발에서 대학이 선발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게 되자 자구책으로 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70년대 본고사 시절 고교등급제가 존재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기여입학제이다. 기여입학제는 학부모가 자기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당해년도에 기부금을 대학에 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논의 자체가 터부시되어

왔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기여입학제는 약간 다른 형태로 행해지고 있다. 기여입학제의 쟁점은 기부금의 투명성 여부와 그 혜택을 누가, 언제부터, 어떠한 자격조건으로 받느냐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 도입되기를 바라는 기여입학제는 투명한 돈의 기부를 원칙으로 하되, 기부자의 자식이 아닌 손자·손녀를 대상으로 하여, 기부일로부터 5년 이후에 대학이 설정한 최저학력기준을 만족할 경우 대학의 심사를 통해 입학 여부를 결정하고, 입학 후에도 엄격한 학사관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문제는 투명한 돈의 정의와 대학의 책무인 올바른 기부금 사용에 있다. 예를 들어, 전자는 기부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기부금 총액을 고려하여 합당한 세금을 납부했느냐 등으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부금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국제 수준의 교수진 확보, 시설물 보강이나 확장, 그리고 장학제도의 개선 등 그 활용처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은 성적이 아닌 학생 부모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소득이 낮은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기여입학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기여입학제로 입학하는 학생 수(예를 들면, 정원 외로 입학정원의 0.5%), 기여입학금 연간 총액(예를 들면, 그동안 대학이 제공한 등록금대비 장학금 환원율을 참고하여 제시) 등 이 제도가 사회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불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고 정착되어 실행되기 위해서는 대학이 무한한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노력하여 사회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II. 논술고사(자연계를 중심으로)

올해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이 49개교 등으로 많아지면서 상위권 대부분의 자연계 학생들이 논술을 준비하게 되었지만, 논술의 형태가 대중화되지 못하여 교실에서의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논술은 통합논술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통합논술은 통합교과형 논술로서 수험생들의 다양한 교과지식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글쓰기이다. 인문계와 자연계 논술의 구분은 지문에서 다루는 내용을 바탕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부 문항은 공통으로 주어지기도 한다.

인문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술의 취지는 일상적인 상식에 기초하여 원고 작성능력과 자신의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 전개를 평가하는 것이다. 인문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논술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태가 원래 의미에 부합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에 비하여 자연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논술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것이 있다.

대학은 논술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특정 교과의 지식을 측정” 또는 “지식의 숙지 여부” 등을 피해야 하기 위해서 자연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논술에서 수식의 역할을 약하게 줄이고 서술 위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까지 인문계열 논술과의 차이점은 단지 지문을 수학이나 과학 분야의 글에서 가져 왔다는 데 있을 뿐 수식이나 계산을 이용하는 것은 엄두도 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유형을 자연계 논술이라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연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별 고사의 또 다른 형태인 수리논술과

심층면접에도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수리논술은 논리적 전개에 있어 수식이나 계산 등을 활용하는 영역이다. 다시 말하면 수리논술이란 학교에서 배운 수리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작업이어야 한다. 그러나 특정 지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으로 인하여 수식을 세우거나 계산을 하는 등 수리지식에 기반한 조작을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문제는 찾아볼 수가 없다.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피해가기 위하여 대학들은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해왔다. 예를 들면, 문제 끝에 “설명하시오”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서술형 문제를 수리논술로 피해가는 피로움을 감수하고 있거나 교과서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관계를 이용하여 해석적으로 배운 타원·쌍곡선을 기하적(반사성질)으로 설명하는 등의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잠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대학입시에서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요구해야 하는 것을 살펴보자. 인문계 논술과 자연계 논술을 구분짓는 근거는 대학에 입학한 후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지식 전공일 것이다. 자연계 학생에게 인문학적·철학적 사유가 필요한 문제를 내지 않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가는 논외로 하기로 하자.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논술시험은 인문계와 자연계를 구분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연계 학생들에게는 자연과학의 학문적 특성에 맞는 논술문제를 출제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자연계 학생들에게는 단지 지문만 자연과학 분야에서 가져오는 형태의 논술은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형태의 문제는 수영선수를 달리기 능력으로 뽑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자연계 논술은 주어진 문제 상황을 이해하여 수식을 도출하고 계산 등을 시행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자신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일과 에너지와 무리함수를 활용하여 고속도로에서 차량간격을 100미터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판례를 제공하여 그 판례의 타당성을 수리적으로 검토한다” 또는 “우리나라 농가인구 비율 통계를 바탕으로 이를 지수함수로 접근하도록 하여 농가인구 비율이 5% 이하로 떨어지는 시기를 예측하도록 하고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요구한다” 등은 수리력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는 데 적합하다고 본다. 그러나 자연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논술을 이런 방향으로 실시하자고 주장하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보인다. 몇 년 동안 여러 대학에서 출제한 수리논술 문항을 보면 앞서 살펴본 대로 대체로 서술형 문제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이유가 없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자연계 논술문제는 각 대학마다 출제경향이 다르고 아직 누적된 자료가 별로 없어 이를 대비해야 하는 수험생들은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형편이다. 각 대학마다 출제경향이 다른 것은 원래 대학별 고사는 출제 대학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 경향이 다를 수 있지만,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변별력을 가지는 문제를 출제하기 위하여 더 심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도시에서는 발빠른 사교육계가 논술시장을 형성하여 학부모의 과도한 지출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원론적으로 자연과학의 특성에 맞는 평가를 하는 문제나 현실적으로 자연계 학생들에게 인문계 학생에 비해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지방 학생들이 서울로 상경할 필요 없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입시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리논술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

어은 서술형 평가를 말 그대로 서술형 평가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때, 교육과정의 범위는 7차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려 다음과 같아야 한다.

영역	수학	과학
과목명	수학 I, 수학 II	물리 I, 화학 I, 생물 I, 지구과학 I

이 때, 과학의 문항은 4과목 중 최대 3과목에서 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리하자면, 본고사가 금지되어 있는 지금 자연계 논술에서는 인문계 논술과 같은 글쓰기가 아니라 자연계에 맞는 논술형태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수학이 자연의 언어라는 갈릴레이의 말과 같이 과학적 소양에 근거한 수식의 사용은 자연과학에서는 상식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자연계 논술은 주어진 문제 상황을 이해하여 수식을 도출하고 계산 등을 시행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자신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논술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학별 고사는 심화과정을 포함한 교과서 안에서 출제하는 서술형 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수험생들은 각 대학별로 다르게 준비할 필요가 없게 되며, 전국의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지도가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대학도 채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점에 걸리는 시간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별 고사에서 교과 지식의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바뀌어야 하는데,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은 교과 지식의 사용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데서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통제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인하여 진통을 겪고 있다. 이 문제를 떠들썩하게 다루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지금 자연계열 학생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인문계열 학생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져야 한다. 우선 자연계열 수험생들은 정시에서의 수리 “가”형을 보려면 수학 I까지만 공부하면 되는 “나”형에 비하여, 수학 II와 미분·적분 등 심화선택과목까지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두 배 이상의 많은 양을 소화해야 한다. 더구나 자연계 논술이 대부분의 대학에서 실시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논술에 대비해야 하는데, 이 논술마저 대학마다 출제경향이 다른 것이 현실이다. 서너 개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은 출제경향이 다른 서너 개의 논술시험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어쩌다가 자연계열 학생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었는지 몹시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나라의 입시정책의 흐름을 보면 잠시만 눈을 떼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속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얼마 전까지는 심층구술면접이 자연계열 학생들에게는 대학별 고사의 주류였는데, 이제는 논술이 주류가 되었다. 그러면 정말 논술이 자연계열 학생들을 선발하는 좋은 도구인가? 누구나 알고 있듯이 논술이라는 형태는 자연계열 학생들의 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적절한 도구로서 도입된 것이 아니라 수능과 내신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대학에서 (인문계) 논술을 도입한 후 그것이 자연계열에까지 퍼져온 것이다. 본고사가 금지되어 있는 현실에서 차선책으로 구술면접을 보다가 이제 자연계열 논술로까지 흘러왔다는 것이다.

아마도 모든 사람이 수학시간에 수학은 왜 배우냐는 물음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사회나 과학 등 타 교과목과는 달리 수학이라는 교과의 특성이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본다. 수학의 유용성은 고등학교까지의 단계에서는 맞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리는 술형태에서는 약간이나마 그 유용성의 끝자락을 잡아볼 수 있다. 앞에서 예를 든 “고속도로에서 차량 간격을 100미터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게 하고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판례를 제공하여 그 판례의 타당성”을 논술하라는 문제를 다시 보자. 교과서에서의 과학·수학에서는 시간, 속도, 가속도 등과 에너지는 일로 전환된다는 것을 배운다. 학생들은 이 상태에서 몇 가지 문제를 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속도, 가속도는 학생들의 생활과는 관계가 없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죽은 학문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시 문제는 교과서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서 자신이 배운 지식이 어떻게 쓰이는가까지 넘겨다볼 수 있는 형태이다. 즉, 고속으로 질주하던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몇 미터를 더 가다가 멈추는가는 운동에너지와 마찰력이 한 일 사이의 관계로 구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사고에 관련하여 판사가 내린 판결이 타당한지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업은 교과서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이지만 학생들과 교사 사이의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면서 교수-학습형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III. 맺음말

필자는 본 소고에서 논술의 출제, 범위 및 평가 방향 등을 제시하였고 고교 교실에서 교수-학습 형태의 변화를 기대하였다. 2009학년도 이후부터 대학입시의 정착 여부는 대학별 교사, 즉 논술의 성공적인 운영에 있다. 이를 위하여 논술 가이드라인을 철폐하여야 하며, 대학은 사회적 책무성의 입장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존중하고 그 틀 안에서 학생들을 평가하여야 한다. 

박제남

인하대를 졸업하고, 서강대에서 이학 석사학위를,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테네시대학교 노스벌 캠퍼스의 수학과 조교수를 거쳐 현재 인하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교수, 입학처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The general theory of splitting multiplicative sets」, 「Strongly primary ideals」, 「Lecture Notes in Pure and Applied Mathematics」 등 다수가 있다.